

PARTIAL · 부분 시공

예산 1천만 원으로 효과 크게 보는 부분 인테리어

1천만 원으로 바꾸는 우선순위

낡은 집을 전부 뜯어내지 않아도, 손대는 순서만 잘 잡으면 공간의 인상은 확 달라집니다. **예산 1천만 원**,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만족도를 가릅니다.

전체가 아니라 '순서'가 답일 때

이사나 전세 만기, 혹은 '전체 공사는 부담스럽지만 지금 이 집이 답답하다'는 마음이 부분 리모델링의 출발점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수천만 원을 넘나드는 것과 달리, 부분 인테리어는 예산 상한을 먼저 정해두고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띄고 매일 쓰는** 곳부터 손보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입니다. 같은 1천만 원이라도 배분 순서에 따라 완성 후 체감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분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도배·바닥·조명처럼 **집 전체의 톤**을 바꾸는 '면(面)'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주방·욕실·현관처럼 특정 공간을 집중해 고치는 '점(點)' 작업입니다. 예산이 한정될수록 면 작업으로 전체 인상을 먼저 정돈한 뒤, 남은 예산을 가장 노후한 한 곳에 몰아주는 편이 실패가 적습니다.

1천만 원, 이렇게 나눕니다

아래는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1천만 원 예산을 배분해 본 예시입니다. 모든 금액은 **범위(추정)**이며 자재 등급과 현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항목을 전부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예산이 소진되면 아래쪽 공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방식으로 읽어 주세요.

1천만 원 부분 리모델링 예산 배분 예시(30평대·추정)

공정	범위	예산 금액대
도배(전체)	천장·벽 합지 또는 실크	약 150만~300만원
장판·마루 교체	장판 또는 강마루	약 150만~400만원
조명·스위치	거실·주방 등기구+간접	약 60만~150만원
주방 문짝·필름	문짝 교체 또는 필름	약 100만~300만원
욕실 부분 보수	부분 방수·부속 교체	약 120만~350만원
현관·중문	신발장 필름·중문 설치	약 80만~250만원



무아 시공 사례 · 용문 살롱

위 항목을 모두 더하면 대략 **약 660만~1,750만원 선**으로 폭이 넓습니다. 실제로는 이 가운데 3~4개 공정만 골라 1천만 원 안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인테리어 비용은 같은 공정이라도 자재와 업체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표는 방향을 잡는 참고용으로만 봐 주세요.

참고 · 표의 금액은 지역·평형·자재 등급·현장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현장 실측 견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노후 주택은 철거 후 예상치 못한 보수가 더해질 수 있어, 전체 예산의 10% 안팎을 예비비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효과가 큰 순서, 이렇게 정합니다

예산이 제한적일 때는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정돈하는 공정'과 '매일 손이 닿는 공간'이 투자 대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래는 무아인테리어가 부분 시공에서 자주 권하는 우선순위입니다.

- 1순위 도배 — 벽과 천장 전체 톤을 바꿔 가장 넓은 면적을 저비용으로 정돈합니다.
- 2순위 조명·스위치 — 등기구와 간접조명만 바꿔도 저녁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 3순위 바닥 — 장판·마루 교체로 도배와 함께 '새 집' 인상을 완성합니다.
- 4순위 주방 문짝·필름 — 상·하부장 문짝 교체나 필름으로 큰 비용 없이 주방을 리프레시합니다.
- 5순위 욕실 부분 보수 — 전체 철거 대신 방수·줄눈·부속 교체로 위생과 인상을 함께 개선합니다.

- 6순위 현관 — 신발장 필름과 중문 설치로 첫인상, 단열, 냄새 차단을 한 번에 잡습니다.



무아 시공 사례 · 우림필류 12단지

공정별로 얼마쯤 잡아야 할까

각 공정의 대략적인 비용대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대전 인테리어 비용은 업체·자재에 따라 편차가 있어, 아래 금액 역시 모두 추정 범위이며 같은 이름의 공정도 자재 등급에 따라 두 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분 공정별 비용대·특징(추정·참고용)

공정	예상 비용대	포인트
도배	약 150만~300만원	합지↔실크 등급차가 큼
조명	약 60만~150만원	간접조명은 목공 동반 시 상승
주방 문짝·필름	약 100만~300만원	구조 유지 시 가성비가 높음
욕실 부분	약 120만~350만원	방수 재시공 여부가 관건
현관·중문	약 80만~250만원	중문 종류에 따라 변동 큼

줄여도 되는 공정, 줄이면 안 되는 공정

부분 리모델링은 '어디서 아끼느냐'가 관건입니다. **줄여도 되는 공정**은 대체로 마감·장식성 항목입니다. 몰딩·아트월·불박이 장식장, 고급 수입 벽지, 디자인 등기구 등은 표준 자재로 대체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방도 전체 교체 대신 문짝·필름으로 미루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이면 안 되는 공정**은 물·전기·방수처럼 '숨어 있고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전 욕실 리모델링에서 방수를 아끼면 아랫집 누수로 이어져 오히려 부분 공사비의 몇 배가 드는 일이 흔합니다. 노후 배관이나 누전 위험이 있는 전기 역시 벽·바닥을 뚫기 전에 손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은 미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과 방수는 미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아 시공 사례 · 엑스포 5단지

“눈에 보이는 마감은 미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와 전기는 미루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부분 리모델링을 고민한다면

대전·세종은 1990~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전체를 손대기보다 도배·조명·주방 문짝 정도만 바뀌도 분위기가 크게 살아나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무아인테리어는 대전 주방 리모델링이나 대전 욕실 리모델링을 상담할 때도 무조건 전체 공사를 권하기보다, **지금 예산으로 가장 효과가 큰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는 편입니다. 담백한 화이트·우드 톤과 생활동선 정리라는 무아의 강점은 부분 시공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1천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일수록,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미룰지 정하는 일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집의 상태와 우선순위는 현장마다 다르므로, 부분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라면 현장 실측과 무료 상담을 통해 예산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순서를 함께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MU:A

INTERIOR

당신의 공간에,
무아를 담겠습니다.

공간을 비우고, 삶을 채우다

무료 상담 · 현장 실측 문의

@muadesign2025 · www.ttasum.com

정확한 견적은 현장 실측 후 안내드립니다.

☎ 010-9447-7622